高麗正豊銘金鼓

黃 壽 永

七月 日本 坪井良平氏로부터 本會刊 「金石遺文」을 받았다는 鄭幹事앞 書信에 다음과 같은 同書에 누락된 金鼓銘 新例 一件을 알려왔다 氏는 日本梵鐘(韓國鐘을 넣어)研究의 權威者이다。

이 靑銅金鼓는 日本 長野縣 下諏訪高木居住 伊藤模雄氏의 所藏品으로서 通型의 片面盤形인 바 最大徑 三五·八㎝ 厚 一〇㎝로서 側面에 二耳가 있다。 鼓面에는 內區에 十五瓣蓮花文 外區에 飛雲紋三個가 돌려있어 이것도 他例에서 흔히 보는 形式인 바 側面을 돌아 陰刻된 記銘은 다음과 같다。

正豊五年庚辰三月 日 溟?州北山揚等寺火香比丘智資小同□?夏金達庶山同心發願虎近良且李甲等諸得爲半子□豆入重八斤四兩鑄成縣排印

正豊은 金 年號正隆으로서 高麗 毅宗十四年(一一六〇·AD)에 해당한다 半子는 盤子 鉢子 飯子 般子등의 他品에서의 使用例와 같이 金鼓를 가리킨다。 最終의 印은 印으로서 끝을 뜻하는 吏讀인 바 高麗의 鍾이나 香爐에서 類例를 볼 수 있다。

이 正豊銘半子에 대하여서는 拙稿 「新羅高麗定銘口考」(東國大刊 「黃義敦先生古稀記念史學論叢」所收)에서 附記한바 있는데 (「對馬」에 실려있는 坪井氏 「對島의 梵鐘과 銅鉦」에서 弘用) 이제 同氏의 厚意로서 비로서 銘文全文을 얻게된 것은 매우 고마운 일이다。 故藤田亮策氏는 此品外에 半子銘金鼓의 他例를 朝鮮에서 본 일이 있다고 하였는데 (「靑丘遺文」(二)「大和文化研究」二卷四號) 알 수없는 일이므로 (혹시 飯子例를 가르킴이 아닐까) 이 「半子」銘品은 아마도 지금까지 알려진 唯一例인가 한다。

(八月二日)

慶州 新羅石佛立像蓮座 二例

鄭 明 鎬

狼山西麓 逸名寺址(現善德寺)와 獐項里寺址에는 新羅時代의 石製蓮華座가 있어 注目되어온 바 最近 調査할 機會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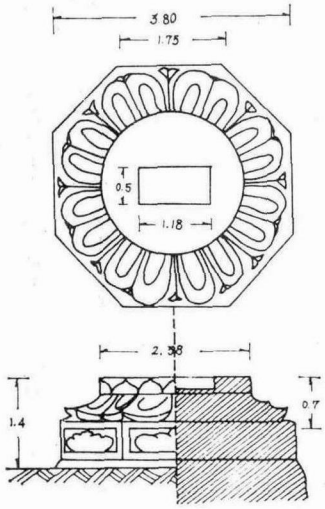
一、逸名寺址石佛座……現善德寺前方의 耕作地에 이 八角臺座가 있다。 下臺石에는 八瓣의 伏蓮華文이 있고 그에 이어 十六單瓣의 仰蓮華帶가 있어 이것이 圓形上臺石의 側面을 裝飾토록 되었다。 下臺石 八角邊에는 各邊마다 眼象이 各一區씩 彫飾되어 있다。 上臺上面 中央에는 長方形의 溝가 있는데 이는 立佛下端의 촉이 끊치도록 造出한 것인듯하다(이 遺物附近에는 頭缺菩薩像과 石燈下臺石 等이 散在되어 있다)

(慶州市排盤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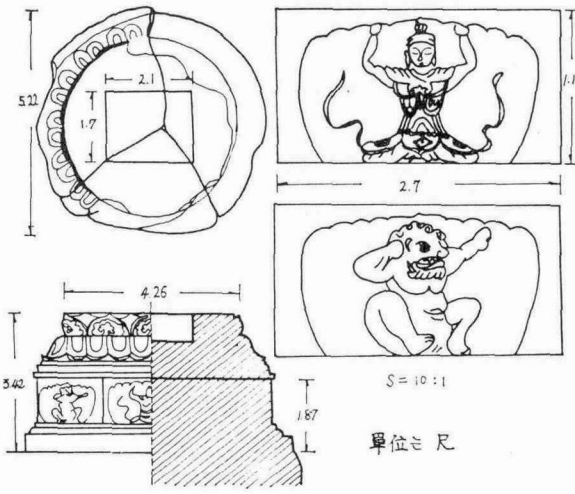
二、獐項里寺址石佛座(註)……史蹟第四十五號로 指定된 寺址에 雙塔(其中 하나는 倒壞됨)이 있고 그 中間地點에 이 八角臺座가 놓였다。 臺座는 相當部分 破損되어 全貌는 不明이나 殘存部分으로 復原만은 可能하다。

下臺에는 八角各面마다 深五分의 雄偉한 眼象을 刻하고 그 區內에 四天王像과 獅子를 浮彫하였다。

下臺上面에는 伏蓮을 새기고 上臺側面에는 單瓣의 仰蓮華를 돌려새겼는데 瓣內에는 寶相唐草가 있다。



1. 善德寺前田石佛立像蓮華臺



2. 獐項里寺址 八角臺座 및 眼象

上臺上面中央에는 方溝가 있는데 이것도 亦是 前者의 그것과 한가지로 立佛을 固定하기 위하여 만든 것인 듯 하다。(調査에는 同人 黃壽永申榮勳兩氏와 崔承一君의 配慮를 받았다)

(月城郡陽北面)

〔註〕이 臺座위에 安置되었던 如來立佛像의 破片은 慶州博物館에 所藏되어 있다。

一圖 上徑 二・三六尺、長方形溝 一・一八×〇・五 深 〇・二 花崗岩
二圖 上徑 四・二六 長方形溝 二・一×一・七 深 〇・七 花崗岩

考古美術 六一ㄴ

◎ 梨大博物館에서 慶北地方踏査

梨大博物館에서는 지난 七月七日부터 十八日까지 다음과 같이 慶北一帶의 踏査를 實施하였다(參加者 秦弘燮 金成俊敎授外 姜敬淑 金慶姬 金和英諸孃)

奉化地方(物野面北枝里磨崖佛)

安東地方(臥龍面、安東市新安洞及安奇洞古墳群開目寺塼塔址——資料欄參照——・豊山面下里洞石塔二基——資料欄參照——雲臺寺仁王像及石造臺座)

英陽地方(縣洞三層石塔——資料欄參照——・同洞模塼石塔・立巖面新邱洞三層石塔——本文參照——・同面奉甘洞模塼石塔)

慶州地方(南山——資料欄參照——・狼山磨崖佛像・皇福寺址・芬皇寺東南方塔址・皇龍寺址石窟庵

大邱地方(慶北大博物館・大邱市伏賢洞先史遺蹟・李양선氏所藏品)

軍威地方(三尊石窟・孝令面內梨洞石佛)

◎ 高大에서 熊川貝塚發掘

高大博物館에서는 金廷鶴館長 主宰下에 지난 六月三一日부터 七月十三日 發掘이 實施되어 多大한 成果를 걷우었는데 이번 發掘은 同地區에 對한 第三次 調査이다。

◎ 全南大에서 陶窯址發掘

國博 崔淳雨氏 指導를 받아 全南大의 湖南文化研究所主管으로 潭陽郡水北面寒水洞의 李朝時代 陶窯址를 七月三十一日부터 八月五日에 걸쳐 發掘하였다。

◎ 서울南大門修理報告書 刊行着手

서울市 敎育廳에서는 一九六三年 五月에 完工을 본 서울 南大門修理報告書 刊行을 爲하여 同報告書作成委員으로 金庠基、秦弘燮、林泉、金正基、申榮勳 五氏를 委囑하고 今年末까지 原稿作成을 完了할 計劃이다。 刊行은 明年初로 豫定하고 있다。

◎ 石窟庵現況調査委員會(第一次)

七月二十七日 文化財管理局長室에서 開催되었는 바 調査團 構成의 目的으로 「石窟內部에 濕氣가 생기는 原因을 調査하고 그 對策을 강구함에 있다」고 하였다。

團員으로서 金允基(建築團長) 국채표(氣象臺長) 孫致武(地質) 金聖三(氣象)의 四人、工事經緯報告가 있었고 調査方針과 期間事後處理問題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出席은 以上 四人以外에 金庠基文化財委員長 黃壽永委員 柳海宗氏 局長署理外 關係官등이었고 現場調査를 決定하여 團員外 柳氏가 同行키로 되었다(八月二日出發)